

“끝날 때까지 모른다”...KIA, 7회 이후 승부 요동

‘뒤집고, 뒤집히고’...최근 10경기 5승5패 ‘48득점·46실점’

흔들린 불펜·묵직한 타선...20경기 중 15경기 3점 차 이내 접전 5경기 남은 3위 경쟁...한 점 싸움 더 중요 막판 집중력 유지 관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경기는 끝까지 봐야 한다.

끌려가면 경기를 뒤집는다. 반대로 잡았던 승리를 놓치기도 한다. 시즌 막바지에 이런 경기가 잦아졌다.

6월 기준 KIA는 75승 62패 2무로 3위다. 4위 LG와 승차가 없다. 5위 두산에는 2경기 앞서 있다.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 경기 내용 역시 팽팽했다.

최근 10경기에서 KIA는 5승 5패를 기록했다. 48점을 뽑고 46점을 내줬다. 득실차는 불과 2점이다.

범위를 20경기로 넓혀도 비슷하다. 성적은 10승 10패다. 이 가운데 12경기가 1-2점 차로 끝났다. 3점 차로 3경기다. 결국 20경기 중 15경기가 3점 차 이내였다.

특히 최근 10경기 가운데 9경기에서 7회 이후 승부가 움직였다.

대표적인 게 지난달 20일부터 이어진

KT-LG와의 6연전이다.

첫날에는 5-4로 앞선 9회 동점을 허용했다. 연장 10회에는 3실점했다. 5-8로 역전패했다.

이튿날에도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6회까지 2-0으로 앞섰다. 7회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9회에는 결승점을 내주며 2-3으로 졌다.

마지막 경기는 KIA가 추격하는 쪽이었다. 2-5로 뒤진 7회 3점을 보냈다. 단숨에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8회 다시 2실점했다. 5-7로 무릎을 꿇었다.

KIA는 안방에서 KT에 스윙패를 당했다.

잠실에서는 정반대였다.

LG와의 3연전에서 KIA가 세 경기 모두 웃었다.

3일에 4-2로 앞섰다 7회 따라잡혔다. 4-4로 맞선 9회 김선빈의 기습번트로 한 점을 올렸다. KIA가 5-4로 이겼다.

다음 날에는 2-3으로 뒤진 8회 동점을 만들었다. 8회말 다시 2실점하며 끌려갔다. 그러나 9회 3



KIA 김도영이 지난 6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3회말 3점포를 터뜨린 후 카스트로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점을 뽑았다. 6-5 역전승을 거뒀다.

5일 경기는 더 극적이었다.

3-4로 뒤진 9회초 2사 1-2루. 김도영이 3점 홈런을 터뜨렸다. 스코어는 순식간에 6-4가 됐다.

KIA는 잠실 3연전을 쓸어담았다.

하지만 하루 만에 회비가 엇갈렸다.

광주에서 열린 6일 삼성전에선 6회까지 4-2로 앞섰다. 7회 투런포와 8회 솔로포를 연달아 맞고

고개를 숙였다.

KIA의 경기는 이처럼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타격 지표에서도 특징이 드러난다.

KIA 타선은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0.240을 기록했다. 출루율은 0.314, 장타율은 0.358이다. OPS는 0.672다.

7-9회에는 지표가 더 좋다.

타율은 0.273으로 전체보다 3푼 3리 높다. 출루율은 0.362, 장타율은 0.373이다. OPS도 0.735까지 상승했다.

득점권에서도 비슷했다.

전체 득점권 타율은 0.267이다. 7-9회에는 0.281로 올라갔다.

반면 불펜은 고전했다.

같은 기간 KIA 불펜은 39%이닝을 소화하며 23점을 내줬다. 평균자책점은 5.28이다.

주자를 내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은 1.65다. 불넷 29개를 헌납했고 홈런도 8개를 맞았다.

타선은 경기 후반 힘을 냈다. 하지만 마운드가 버티지 못한 날도 있었다. 접전이 반복된 배경이다.

이제 KIA에 남은 경기는 7일 롯데전을 포함해 5경기다. 3위 경쟁도 끝나지 않았다.

한 점의 무게가 더 커졌다. 승부처에서 집중력도 더욱 중요해졌다. /주홍철 기자

2026-2027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김세진 SOOP 감독 “확고한 시스템 구축...즐거는 배구 할 것”



7일 서울 강남구 호텔 리베라 청담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서 참가팀 선수 및 감독들이 트로피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생팀 SOOP을 이끄는 김세진 감독은 이날 미디어데이 사전 인터뷰에서 지도 철학과 새 시즌 출사표를 던졌다. 주축 선수들의 이적과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불참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팀을 꾸린 김 감독은 “수비와 커버 등 기본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다”며 “선수들이 배구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미있게 즐기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리베로 자리는 탄탄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공격력이 숙제”라며 “부담이 클 세터들이 짐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플레이를 고심 중이며, 우선 컵대회 1승이 가장 목마르다”고 절실함을 전했다. /연합뉴스

1라운드 이호민, 3억5천만원 ‘도장’

KIA, 신인 선수 입단 계약 완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7년도 신인 선수 11명과 입단 계약을 마쳤다. (표 참조)

KIA는 7일 신인 선수 11명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라운드 지명 선수 이호민(경남고·내야수)은 계약금 3억5천만원에 사인했다. 2라운드 골병진(부산고기대·투수)은 계약금 1억6천만원을 받는다. 3라운드 노민혁(용마고·내야수)은 계약금 1억2천만원에 계약했다. 연봉은 3천300만원이다. 이로써 KIA는 2027년도 신인 선수 11명과 입단 계약을 모두 마무리했다.

/주홍철 기자

2027 신인 계약 현황					
순위	이름	포지션	투타	소속	계약금
1R	이호민	내야수	우투우타	경남고	3억 5천만원
2R	박병진	투수	우투우타	부산고기대	1억 6천만원
3R	노민혁	내야수	우투우타	용마고	1억 2천만원
4R	이동걸	투수	우투우타	용문고	9천만원
5R	김선빈	투수	우투우타	광주목정고	7천만원
6R	김영준	투수	우투우타	공주고	6천만원
7R	이세현	투수	우투우타	배명고	5천만원
8R	소재희	내야수	우투우타	유신고	4천만원
9R	지민혁	투수	우투우타	연성고	4천만원
10R	이민환	투수	우투우타	광주중앙고	3천만원
11R	유재현	포수	우투우타	휘문고	3천만원

손흥민, A매치 59호골...전설 차범근 넘었다

우즈벡 평가戰 프리킥 선제골 48년 만에 한국 축구 ‘새 역사’

손흥민(34·LAFC)이 A매치 59호 골을 터트리며 마침내 ‘전설’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약 48년 만에 넘어섰다.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썼다.

손흥민은 6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72분을 뛰면서 0-0으로 맞선 전반 6분 오른발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터트리며 한국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한국 국가대표로 통산 151번째 출전 경기에서 59호 골을 넣어 차범근 전 감독(136경기 58골)과 함께 갖고 있던 A매치 한국인 남자 최다 골 기록을 새로 썼다.

차 전 감독이 1978년 12월 17일 방콕 아시안게임 중국전(1-0 승)에서 통산 58호 골을 터뜨린 뒤 손흥민이 무려 47년 9개월 21일(1만 7천 461일) 만에 신기록을 수립했다.

여자 선수를 포함하면 한국 선수 A매치 최다 골 기록은 미드필더 지소연(수원FC위민)이 가진 76골(182경기)이다.

손흥민은 열여덟살이던 2010년 12월, 시리아를 상대로 한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이듬해인 2011년 1월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인도전에서 A매치 세 번째 출전 경기만에 데뷔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이 지난 6일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에서 프리킥으로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은 매년 태극마크를 달고 지난 16년 동안 한국 축구 최고의 스타로 활약해왔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르는 등 세계 축구 최고의 무대에서도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손흥민은 2014년 브라질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북중미 대회까지 4회 연속 월드컵 본선 그라운드로 누볐다.

손흥민의 50골 중 3골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나왔다. 3골은 은퇴한 안정환, 박지성과 더불어 한국 선수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공동 1위에 해당한다.

손흥민은 이미 지난해 차 전 감독이 가진 기록 하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10월 브라질과 친선경기에서 A매치 137번째 경기에서 나서 차 전 감독과 흥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함께 보유했던 A매치 한국 남자 선수 최다 출전 기록(136경기)을 새로 썼다.

이날 골로 국가대표팀과 프로팀을 합쳐 손흥민이 기록한 공식전 통산 득점은 301골로 늘었다. 손흥민은 독일 함부르크(20골)와 레버쿠젠(20골), 잉글랜드 토트넘 홋스퍼(173골)를 거쳐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FC(20골)에서 뛰면서 프로 통산 공식전 242골을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에 출전하는 광주·전남 태극전사들이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전남 장애인태극전사 30명

亞 패러게임 ‘금빛 도전’ 출격

광주·전남 장애인 태극전사들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금빛 도전’에 나선다.

이번 대회에 광주는 7개 종목 17명(지도자 2, 선수 12, 경기파트너 1, 로터 1, 생활보조 1)이, 전남은 7개 종목 13명(선수 12, 트레이너 1)이 메달 경쟁에 나선다.

전통 강세 종목인 탁구와 사격, 양궁이 메달 사냥 선봉에 선다.

탁구 김영건은 지난 항저우대회 단식 결승서 세계랭킹 1위 태극 왕차이(37)에게 세트스코어 2-3으로 져 은메달을 획득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금메달을 노린다. 전망은 밝다. 김영건은 파리 패럴림픽(2024) 단식 결승서 완차이를 다시 만나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해 항저우 때 패배를 설욕하며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서수연도 패럴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패러게임 결승에서 맞붙는 영원한 라이벌 중국 류

징(38)과 금메달 경쟁을 펼친다.

또 지난 항저우대회(2023) 서 01점차로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던 박승우도 주 종목 공기소총 복사(R5)에서 ‘금빛 총성’을 노린다.

베이징 금메달과 파리 은메달에 이어 2026 창원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는 이윤리(한전MCS)도 금메달 1순위로 꼽힌다.

2025 광주장애인양궁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김옥금과 아시안패러게임에 첫 출전하는 윤태성의 선전도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 펜싱 김선미 조예진이 권호경(홍성군청), 조은혜(서울시장장애인펜싱협회)와 출전하는 예예 단체전에서 동메달 이상을 노리며 항저우 대회와 파리 패럴림픽 은메달리스트 배드민턴 유수영의 금메달 도전은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박희중 기자